

SEA OF YOUR MIND

오 병 옥

Oh Byung Wook

SEA OF YOUR MIND

2025.07.03 - 08.02



오병욱 Oh Byung Wook

《Sea of Your Mind》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오병욱 개인전 《Sea of Your Mind》를 진행한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순간, 화면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선만이 하늘과 바다를 구분한다. 일상의 번잡한 것들 속에서 무언가 거리낄 것 없이 탁 트인 고요한 수평선은 수많은 시간을 관통하며 인류에게 안온함과 평온함을 안겨준다. 누구라도 경험해봤을 바다라는 자연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경험한 특정한 장소를,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 봤던 특별한 풍경일 수도, 언젠가 이미지로 보았던 동경의 풍경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오병욱의 바다는 실제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다는 관찰자의 감각적 경험을, 시각적 경험을 강조하는 그림이다. 작가가 무언가를 의도해서 그렸다고 기보다 관객이 작품을 마주하는 시간과 경험을 관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림, ‘관람객의 마음속 바다’인 것이다.

바다의 얼굴은 항시 변화한다. 오병욱의 바다도 그렇다. 여러가지 색깔과 빛, 그리고 움직이는 그림자가 그 위에 어른거리고, 햇빛을 받아 일렁이며, 해거름 녀이면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낸다. 실제로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면 관람자가 서 있는 곳의 빛의 방향에 따라 조금씩 반짝이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에서 수면의 반응이 시시각각 변화하며 고양되는 까닭은 작가가 두툼하게 밀 작업한 하단의 마티에르가 만들어낸 바다의 주름, 그 위로 흩뿌려진 아크릴 물감에 기인한다. 인터퍼런스가 섞인 물감은 작가가 움직인 신체의 궤적과 중력을 통해 작품에 안착한다. 반짝임이 들어간 물감 입자들은 하단에서는 윤슬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화면 위에서 부유하며 습기, 안개와 같은 대기의 표정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이처럼 무수한 점들이 모인 화면은 바다와 하늘 사이의 수평선 어딘가를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을 촉발시킨다. 작가가 구체적인 자연이 아니라 정신의 표상으로서의 선과 색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바다라는 자연의 특성상 가로로 긴 캔버스가 한계 없이 품어주는 수평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리지만, 작가는 비단 이러한 형식의 캔버스에만 안주하지 않는다. 바다가 담긴 프레임에 변주를 주며 바다의 형태를 담아내는 것이다. 때로는 거대한 캔버스로 벽면 한 칸이 바다가 되기도 하고, 원형의 형태를 띠거나 조각난 바다의 파편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바다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지하 전시장 기둥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담은 아치형 바다는 건물 창문을 연상시키며 보이지 않는 벽면 저 너머까지의 거대한 바다를 상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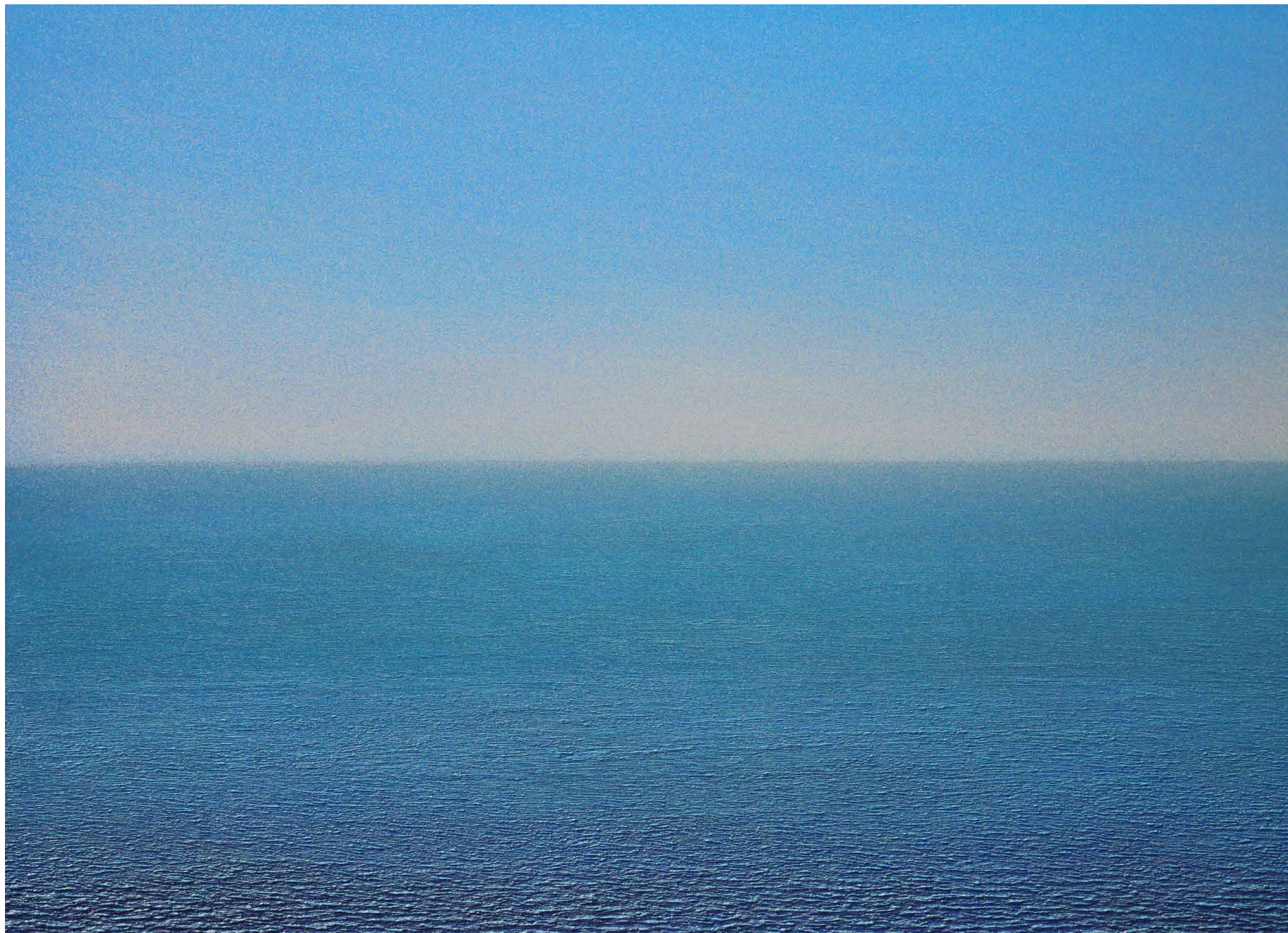
거대하고 모호하고, 무한한 바다를 마주하는 일은 절대적인 자연의 숭고함을 안겨준다. 그리고 오병욱의 작품은 그러한 경험을 가시화한다. 오병욱의 그림은 순수한 색채와 질로로만 이루어진 추상의 형식을 지녔지만 그것들이 숭고한 대상을, 하늘과 바다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안겨준다. 진부한 구상화로서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상과 추상의 구분을 가로질러 간다. 익숙한 재현의 뒤편에 걸리지 않고 형식적인 추상의 틀에 갇히지 않으며 여전히 아름다움과 감동을 지시하는 것이다. 번잡한 일상을 지나 자신의 작품이 잠시라도 일종의 쉽고 평안함으로 다가가길 바란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바다를 마주하는 시간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지켜주며 흔들림 없는 현재의 평온한 상태에, 나아가 자연의 숭고함이 주는 거대한 아름다움과 감동에 근접하게 할 것이다.

ARTSIDE Gallery is pleased to present Sea of Your Mind, a solo exhibition by Oh Byungwook, running from July 3 to August 2. At the moment where the sea and sky meet, a single horizontal line traverses the canvas, gently separating the two. Amid the noise of daily life, this open and unobstructed horizon, stretching timelessly across generations, has long offered humanity a sense of calm and solace. The sea, as a natural entity experienced by all, evokes deeply personal landscapes and memories—be it a special view from a past journey or an image long held in one’s imagination. In this way, Oh Byungwook’s sea is less a literal depiction than a space for sensory and visual experience. It is not a scene painted with a fixed intention, but rather a work that finds its completion through the viewer’s perception and emotional encounter—a “sea of your mind.”

The sea is ever-changing, and so are Oh’s seascapes. Colors, light, and shifting shadows drift across the canvas; the surface shimmers in sunlight and exudes a quiet mystique at dusk. Upon closer observation, the viewer may notice subtle sparkles that vary with the direction of light and position. These effects stem from the artist’s heavily layered base textures, which create ripples on the painted sea, and from the acrylic pigments—some infused with interference colors—that settle through the movement of the artist’s body and the force of gravity. The glittering particles sometimes form luminous reflections near the base or float across the surface, responding like mist or moisture in the air. These countless points come together to awaken the emotional resonance one might feel when gazing into the horizon between sea and sky. Rather than pursuing realism, the artist seeks to convey the line and color as representations of a mental and emotional landscape.

While the expansive horizontal format of a wide canvas best expresses the infinite feel of the sea, Oh does not limit himself to this convention. He introduces variations in format, reimagining how the sea is framed. At times, an entire wall is transformed into the sea by a large-scale work; elsewhere, circular forms or fragmented seascapes are assembled into new wholes. Particularly striking is the arch-shaped canvas installed between columns in the gallery’s lower level. Evoking the image of a window, it invites the viewer to imagine the vast ocean stretching far beyond the visible walls.

To stand before a vast, ambiguous, and boundless sea is to encounter the sublime power of nature. Oh Byungwook’s work gives form to this profound experience. While composed purely of color and material, his abstract paintings continually evoke the sublime—of the sky, the sea, and the unseen. Rather than replicating the world through conventional figuration, his work traverses the boundaries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He resists the trap of familiar representation and avoids confinement within formal abstraction, while still guiding the viewer toward beauty and emotional depth. As the artist himself notes, he hopes his paintings offer a moment of quiet and peace amidst the clamor of daily life. The time spent with his seascapes becomes a refuge from the anxiety of past and future—drawing the viewer into a serene present, and ever closer to the profound beauty and emotional richness that nature 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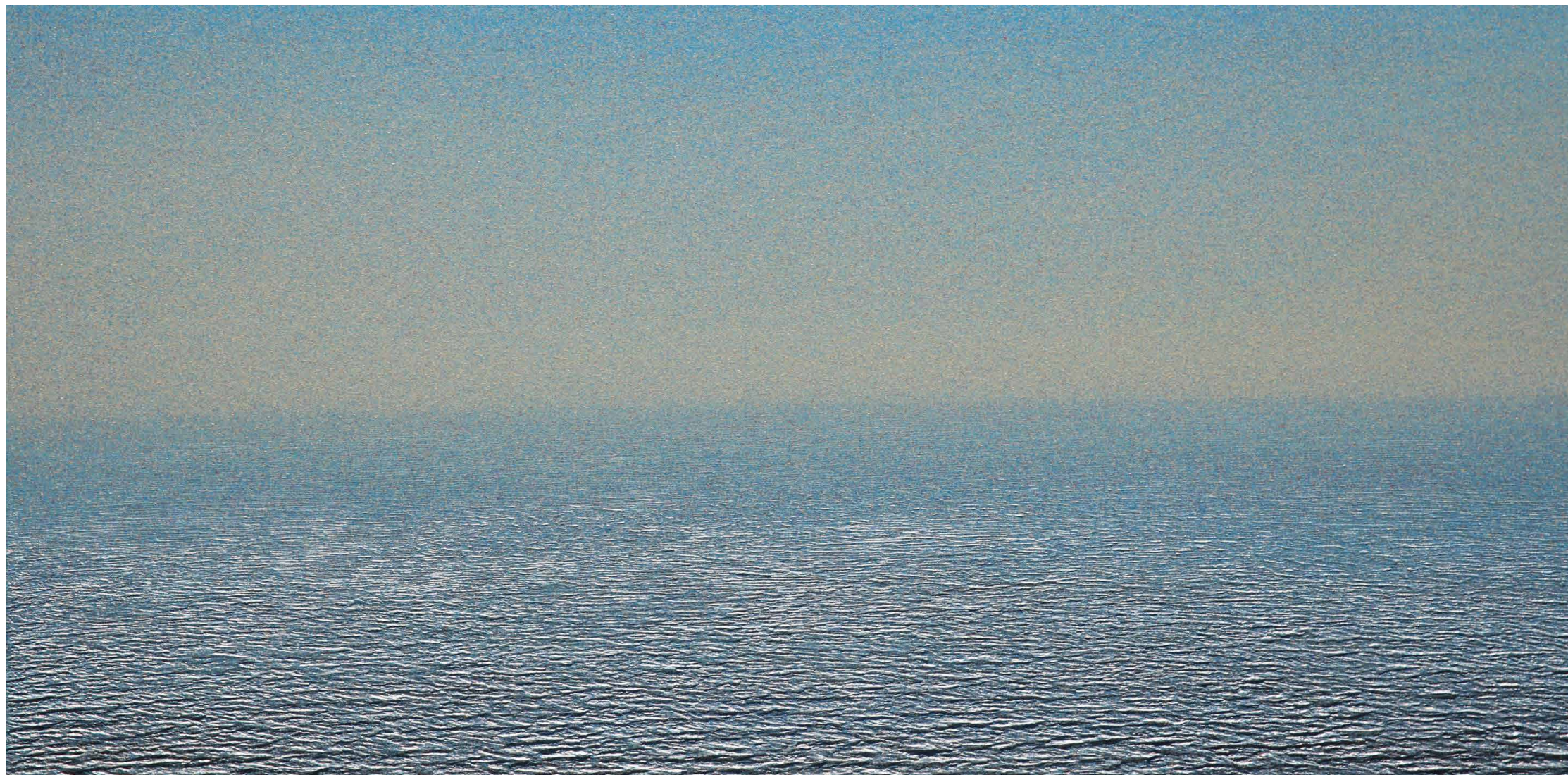
Sea of My Mind #2506097, Acrylic on canvas, 218x291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3, Acrylic on canvas, 80x117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2, Acrylic on canvas, 80x117cm, 2025



Sea of My Mind #2506099, Acrylic on canvas, 80x160cm, 2025



경계에서 진동하는 그림

박영택 (경기대 교수, 미술 평론)

색채와 질료

이 그림은 구체적인 대상이 부재하다. 그것은 형태가 없다. 다만 색채와 빛이 모여 부단히 인지 가능한 그 무엇을 연상 시키다가 이내 색으로 환원되기를 거듭한다.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못하는 화면은 그 사이에서 유랑한다. 질료와 색채, 빛과 이미지가 한 몸으로 얹혀 진동하는 것이다. 보는 이들은 단색조로 도포된 화면 앞에서 역설적이게도 거대한 자연을 마주하고 있다는 환영에 시달린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과 안개가 자욱한 바다 또는 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대기와 처연하게 누워있는 바다가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실제 그림이 어떻게 보이는 지보다는 관찰자의 색 인식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달라지는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그림 안에서 의미나 상징성, 은유 등은 지워지고 전적으로 관람자의 시각적 경험을 강조한다. 작가의 선형적인 의도보다도 관객의 정신 속에서 최 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림이다. 보는 이의 관여가 불가피한 그림인 셈이다. 외형상 물질과 색채 위주로만 이루어진 이 작업은 20세기 이후 후반 모더니즘의 특징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구체적인 대상 세계를 부단히 떠올려주면서 빠져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실재하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유사한 무엇을 지시하는, ‘그것’이라고 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암시한다. 모종의 무드만이 화면을 두텁게 감싸고 있을 뿐이다.

사각형의 프레임

이 그림에는 엄격한 미의 기준이 적용된다. 아름다운 것은 비례적이며 비율에 맞는 것, 그리고 물체의 아름다움이란 첫눈에 감각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화면 가운데를 가로로 질러가는 엄정한 수평의선, 선으로 인지되는 색의 차이로 인해 그림은 양분된 구조를 지닌다.

사각형 혹은 반원형의 창틀에 가까운 화면은 대 부분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그 경계는 사실 모호하고 유동적이다. 비교적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그 경계가 불투명하게 흐려져 있어서 두 개의 색면을 힘겹게 떼어놓고 있다. 명확한 선으로 구획된 것 이 아니라 색의 차이, 색의 그라데이션이 두 개의 색면으로 분리되는 듯한 착시를 유발하는 것이다. 우선 이 수평선은 회화 지지체 표면의 실제적인 현존성, 평면성을 강조한다. 이는 회화의 존재론적 조건인 사각형 틀 안에서 그림의 내 용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인식시킨다. 밑변의 직선과 일치하는 수평선은 사각형 안에서만 자존 하는 선이 고 그 사각의 틀을 따라가는 선이다. 그림의 조건이 그림의 내용을 만든다. 그러나 이 수평선은 전적으로 회화의 평면 성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시각적 구조물은 아니어서 이른바 시적 감수성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로 작동한다. 하나의 선이 개입하면서, 색의 차이로 인해 가능해진 선의 등장으로 인해 모종의 풍경, 이미지가 출현하는 것이다. 화면의 정 중앙으로 미끄러지듯이 개입하는 선은 아래, 위로 달라지는 색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계를 조성한다. 이 경계로 인해 두 개의 색면이 다분히 하늘과 바다를 연상시키면서 적막함과 막막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순전히 색으로만 채워진 화면이 외부세계의 경험을 자극하면서 보는 이들이 기억하는 특정 장소,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부단히 찢러댄다.

가상의 세계

화면 하단에는 두툼한 마티에르 효과를 주었다. 그것은 출렁이는 파도나 섬 없이 흐르는 물결을 암시하는 장치다. 조명을 받으면 반짝이는 수면의 반응이 극적으로 고양된다. 바탕 작업 이후에 작가는 인터퍼런스 컬러를 섞은 아크릴 물감을 흥건하게 묻힌 평붓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 높이에서 화폭을 향해 힘껏 뿌려 화면에 안착시킨다. 물감의 질료성을 무화시키면서 액체성의 상태로 없혀지기가 반복되면서 화면을 부단히 덮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화면 위에는 작가의 신체적 행위나 감정이 직접적으로 개입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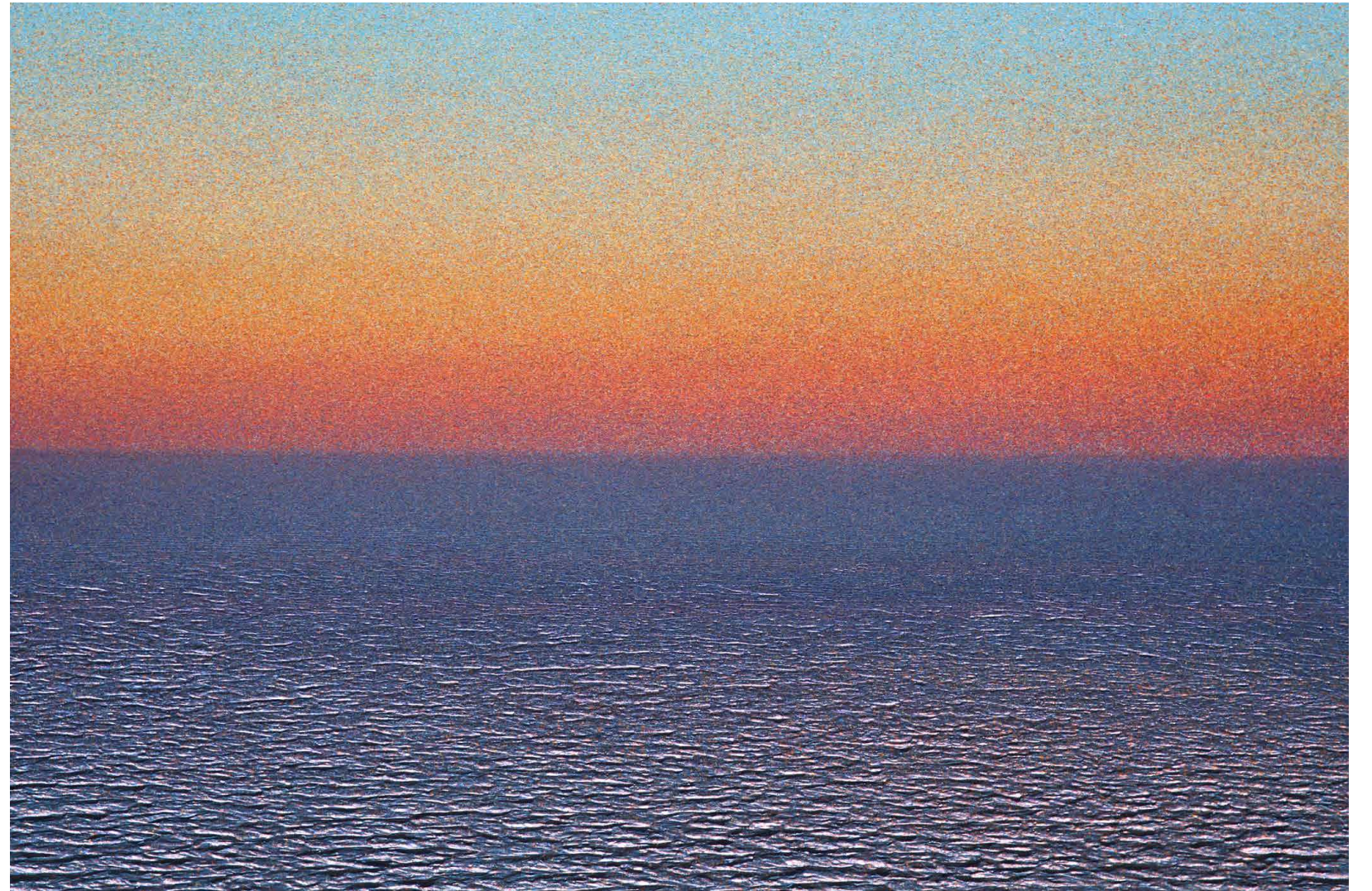
무미와 숭고

작가는 화면을 단순하게 이등분 한 선으로 자신이 자연에서 받은 모종의 경험과 감각을 압축해놓은 듯하다. 이 군더더기 없는 화면은 ‘무미’를 추구한다. 동북아시아 회화의 전통 안에서 무미는 최고의 경지로 간주 됐다. 어떻게 눈을 현혹 시키지 않고 아름다움을 표현할 것인지, 감정의 동요 없이 세속 취향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감동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무미의 차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단조로워 보이는 이 모노크롬한 화면은 그 내부에 무수한 차이를 거느리고 있다. 단일해 보이는 표면은 실은 내부의 미세한 차이의 응집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그림은 있으면서 부재한, ‘없지 않은’ 그런 풍경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과 비현실, 시각과 비시각,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 위치 한 모호한 풍경이 되었다. 그림 속에는 구체적인 외부세계를 지시하는 것이 없다. 전적으로 색채와 빛뿐이다. 그러나 추상적인 이 그림은 보는 이의 감정을 흔든다. 이 동요로 인해 획득되는 것의 하나는 바로 자연에서 만나는 숭고다. 하늘과 바다는 서서히 차오르면서 경계 부분에서 만난다. 이 몽유의 풍경은 현실계를 암시하면서도 막막하고 절대적인 자연의 숭고함을 안겨준다. 그리스어의 높이 (Hypsous)에서 유래한 숭고는 일반적으로 미의 대상이 작고 부드럽 고 경쾌한 것임에 반해 거대하고 모호하고 무한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미적으로 지각해야 할 그림이라기보다는 정서 적으로 작동하는 사물로 간주한다. 숭고란 언어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대신 이미지는 숭고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다. 이미지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느 한 가지 속성으로 규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으므로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형상은 언어로 드러나지 않는 표면의 배후에 있는 깊은 영역의 세계를 건드려주며 무엇이라고 규정하 거나 단언할 수 없는 불투명한 세계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리오타르는 말한다. 진짜 숭고미는 자신이 무한 앞에 섰을때, 그야말로 절대적인 타자성 앞에서 섰을 때 다가온다. 그것은 절대적 타자성이라는 점에서 주체에게는 무와 같다. 말로 할 수 없는 물자체가 감각적인 어떤 것으로 돌출하는 것이다. 오병욱의 그림은 바로 그러한 경험

을 가시화 하고자 한다.

물질과 이미지 사이

이것은 자연을 모방한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 형성 원리들에 기초하여 내적 형상을 구상하고 그것에 따라 감각적 대상을 제작한 것인가? 그림은 캔버스 위의 물감층 혹은 불규칙적으로 뒤덮은 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물에서 벗어나 이른바 미학적 관조 속에서 감상 되기도 한다. 그림이란 하나의 사물이 지각의 방식으로, 상상의 방식으로도 지향되는 것이다. 현대미술이 즉물적인 차원에서 그림을 물질 그 자체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보여왔지만 작품에서 이 미지를 완전히 소거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회화는 물질과 이미지 그 사이에 존재한다. 그림은 결코 물질 로만 귀결될 수 없고 무엇인가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 역시 사물화되지 못하고 항상 상상하고 의식하는 존재다. 그림 은 현실, 실재를 넘어서려는 다분히 의식적인 상상 활동에 해당하며 그림을 본다는 것은 실재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매우 의식적인 활동, 거리두기이다. 좋은 그림은 의미 작용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것(그것)의 출현을 홀연 화면 안으로 불러들이고 안착시키고 그곳에서 서식하게 한다. 그림이란 말할 수 없는 것, 그러나 말하고 싶다는 보충의 안타까운 현존이다. 오병욱의 이 그림은 순수한 색채와 질료로만 이루어진 추상의 형식을 지녔지만 그것들이 숭고한 대상을, 하늘과 바다와 같은 것을 부단히 안겨준다. 체험하게 한다. 그렇다고 진부한 구상화로써 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구상과 추상의 구분은 모호하다. 작가는 이를 가로질러 간다. 익숙한 재현의 밋에 걸리지 않고 또한 형식적인 추상의 틀에 갇히지 않으면서 여전히 아름다움과 감동을 지시하는 것, 그리고 표현될 수 없으며 언어에 의해 포박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시하려는 것이 작가의 그림이라는 생각이다.



Sea of My Mind #25060916, Acrylic on canvas, 80x117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5, Acrylic on canvas, 162x130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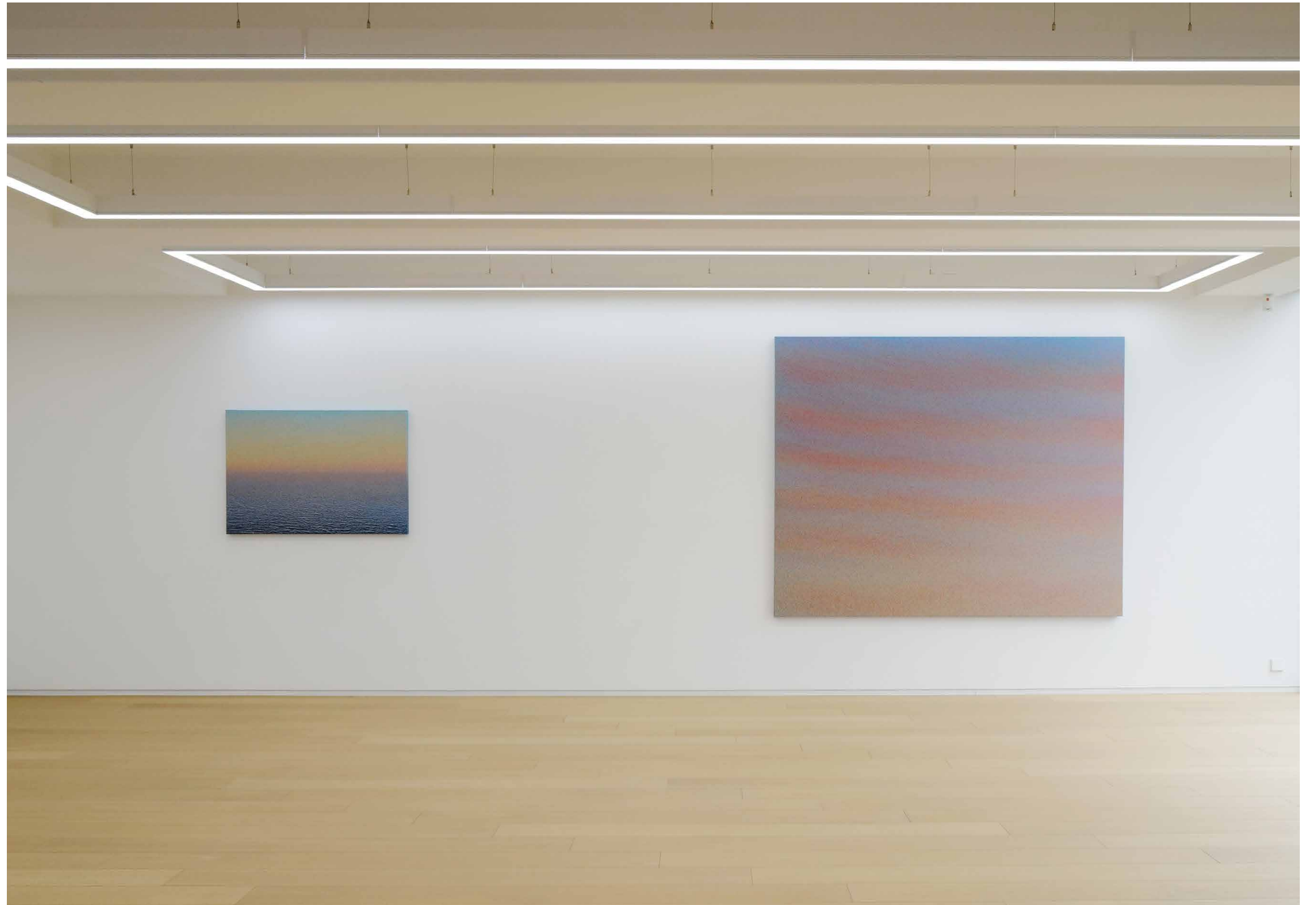
Sea of My Mind #25060920, Acrylic on canvas, dia.100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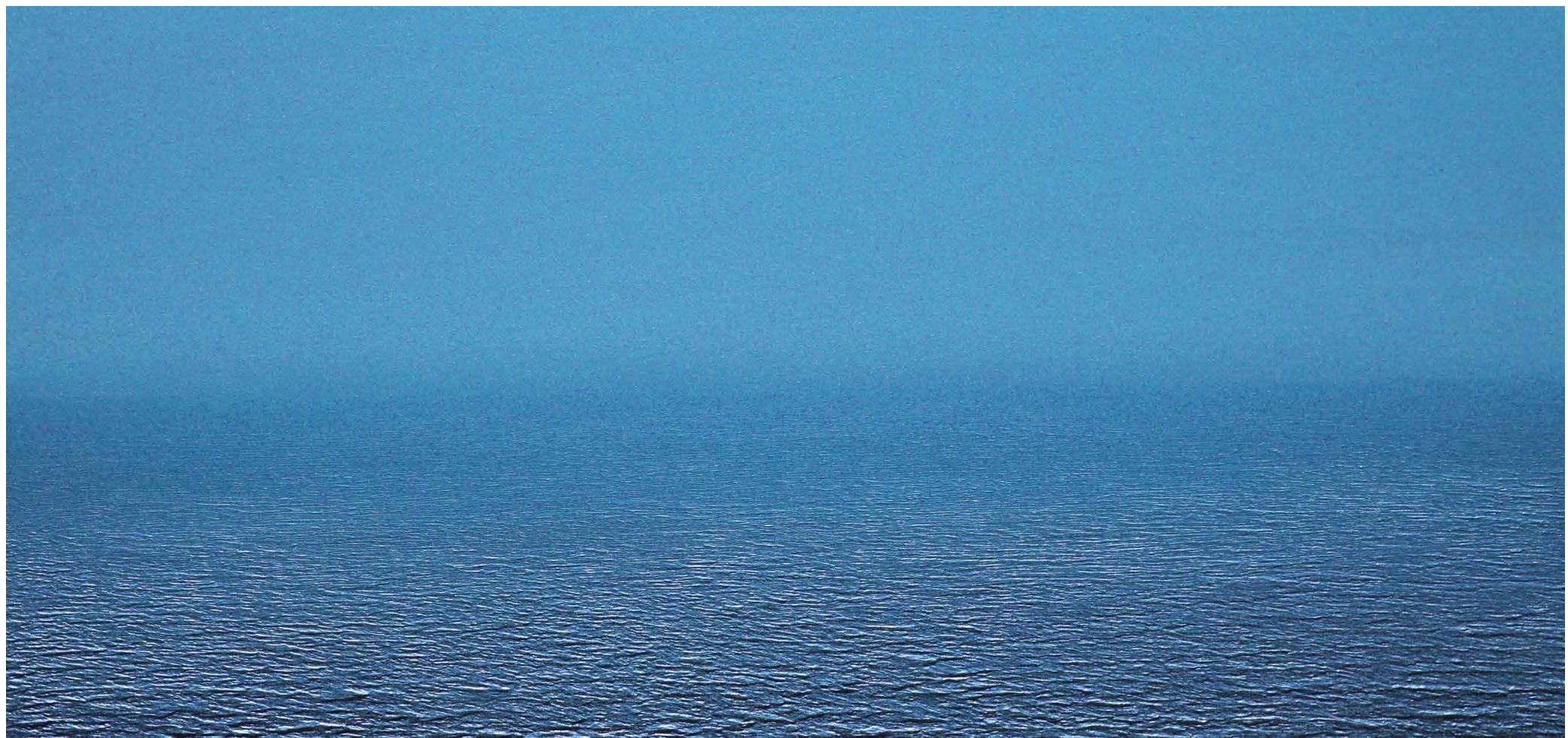


Sea of My Mind #25060923, Acrylic on canvas, 182x227cm, 2025



Sea of My Mind #25060922, Acrylic on canvas, 182x227cm, 2025





Sea of My Mind #2506098, Acrylic on canvas, 80x160cm,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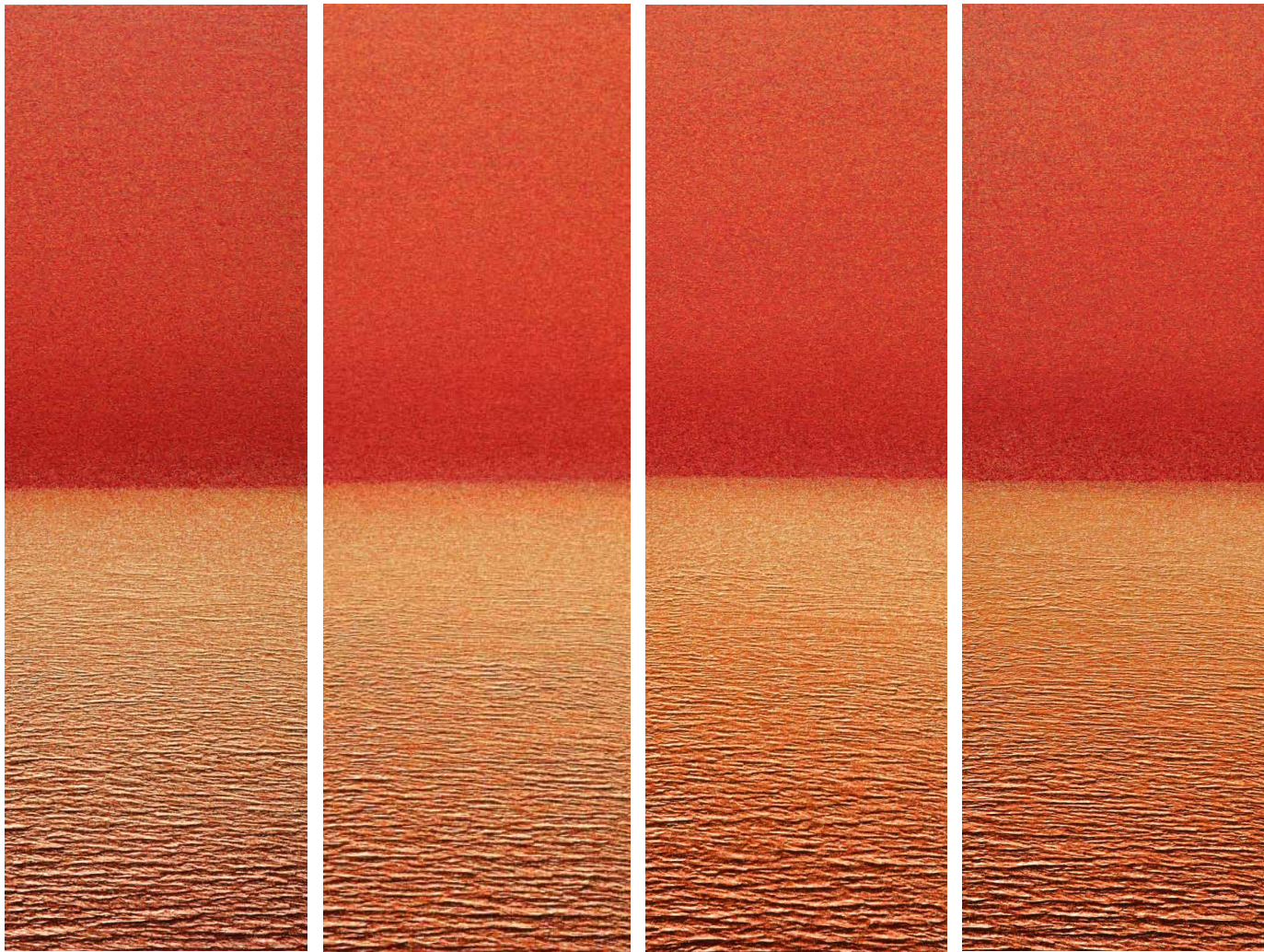
Sea of My Mind #2506092, Acrylic on canvas, 90x180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8, Acrylic on canvas, dia. 100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7, Acrylic on canvas, dia. 100cm, 2025



Sea of My Mind #2506141- 44(Series)Acrylic on canvas, 91x31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4, Acrylic on canvas, 90x180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 Acrylic on canvas, 80x160cm, 2025

A Painting Vibrating on the Border

Park Young-taek (Professor at Kyonggi University, Art Critic)

Color and Materiality

This painting lacks any concrete subject or form. Instead, color and light gather to intermittently evoke something recognizable, only to retract again into pure color. The canvas wanders between these states, never settling. Material, color, light, and image intertwine, vibrating as one. Paradoxically, viewers facing this monochromatic canvas are haunted by the illusion of encountering vast nature. They might envision the glint of light on rippling water, a mist-shrouded sea, or the ocean lying solemn under changing climates. More than a depiction of the painting's appearance, it offers a sensory experience shaped by the viewer's evolving perception of color over time. Meaning, symbolism, and metaphor are effaced—what remains is purely the viewer's visual experience. The painting is ultimately completed in the viewer's mind more than by any *a priori* intention. Thus, viewer engagement is indispensable. Though it appears composed solely of material and color, this work reflects late twentieth-century modernism. And while it continually evokes the tangible world, it never reproduces it—only hinting at something one must call “that.” A certain mood densely envelops the canvas.

The Rectangular Frame

A strict standard of beauty is at play in this painting: it suggests that beauty lies in proportion, balance, and what is sensibly apprehended at first glance. A precise horizontal line stretches across the center of a rectangular or square canvas, dividing the painting into two parts through a difference in color that becomes perceived as a line. The canvas, reminiscent of a rectangular or semicircular window frame, is often nearly split in half. Yet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fields is ambiguous and fluid. Some are sharply defined, but in most cases, the edges are blurred, making the two color planes appear barely separated. The line is not a concrete division but an illusion created by subtle shifts in hue and tonal gradation. This horizontal line first and foremost affirms the painting's flatness and material presence—its actual surface. It makes clear that the content of the painting arises within the ontological frame of the rectangle. The line, aligned with the bottom edge of the canvas, is a line that exists solely within that frame and follows its structure. In this way, the conditions of the painting shape its content. However, this horizontal line is not merely a purely visual device meant to affirm the painting's flatness—it also serves as a medium for conveying poetic sensibility. The introduction of the line, made possible through subtle differences in color, allows for the emergence of a certain landscape or image. As the line gently slips into the center of the canvas, it creates a boundary where the tonal shift between the upper and lower areas takes place. This boundary subtly evokes the sky and the sea, establishing an atmosphere of stillness and vastness. Though the surface is filled entirely with color, it stimulates associations with the external world, persistently prodding the viewer's memory of specific places and spaces.

Imaginary Worlds

The lower part of the canvas is thick with *matière*, suggesting rolling waves or ceaseless flow. Lighting enhances the shimmering water surface dramatically. After preparing the ground, the artist drenches a flat brush in acrylic mixed with interference pigments, then flings it onto the canvas with strength and distance. This repeated liquid layering gradually saturates the surface, minimizing the material's solidity and

maximizing its liquidity. Because this technique relies on splatter rather than brushstroke, the artist's visible gestures or emotions are minimized. The painting emerges not from conventional brushwork, but from precise, delicate application by falling pigment. Pearlescent paint reacts dynamically to light, shimmering with changing hues. Pigment particles accumulate and hover like mist—a quasi landscape of airborne droplets descending like snow. These countless specks settle to evoke the sky, sea, mist, humidity, climate, and time. They accumulate into a majestic, beautiful landscape—a condensation of the artist's physical presence into sky and sea. Yet it is not a real landscape, but a virtual, non-existent world. His aim is not to depict material scenery, but to express the feeling that arises when we gaze at the horizon between sky and sea—a transfiguration through line and color that surpasses concrete nature.

Simplicity and the Subl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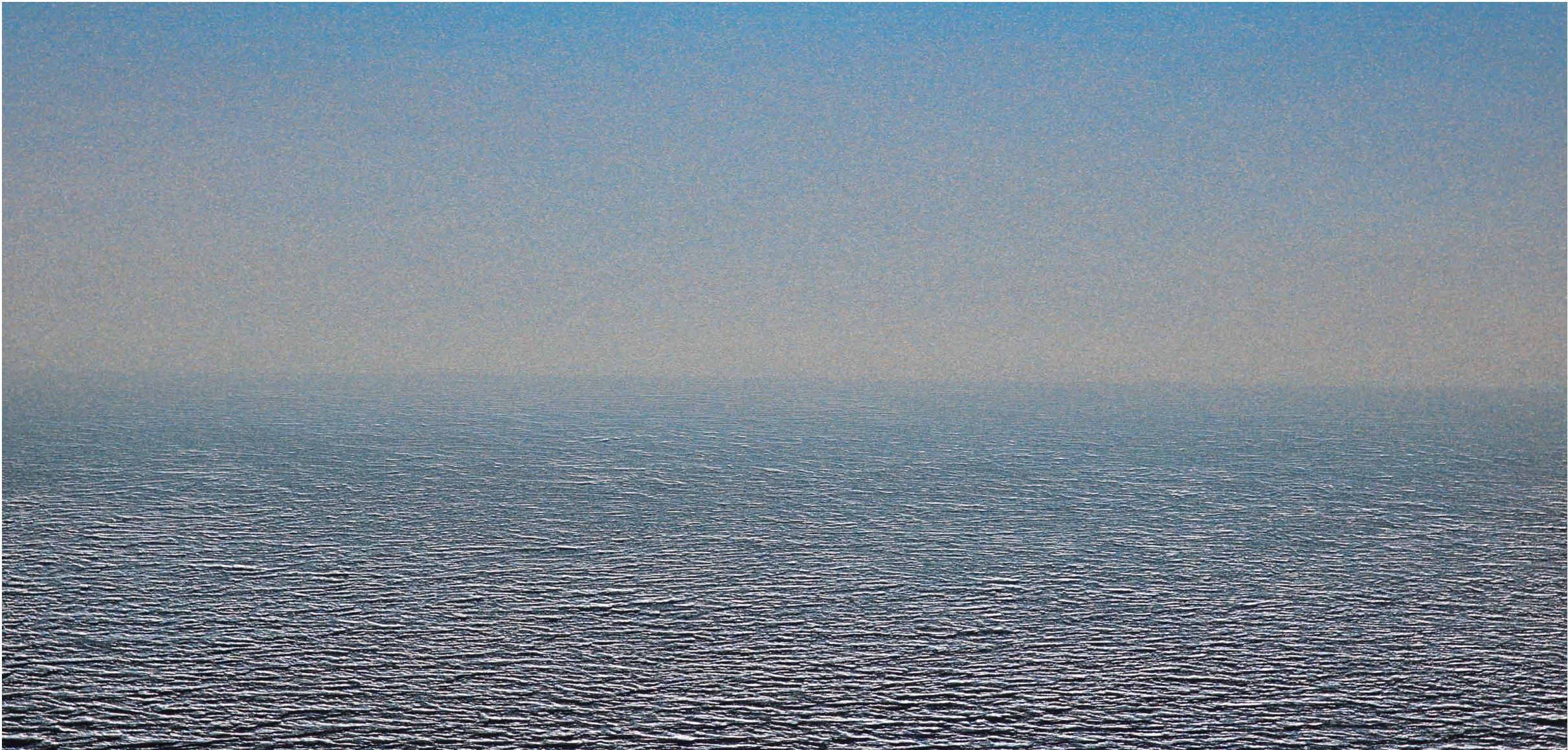
The artist appears to have distilled a certain experience and sensation from nature into a single, simple line that divides the canvas evenly in two. This stripped-down composition pursues a sense of simplicity and refined subtlety, deliberately avoiding any excess or decorative elements. Within the tradition of Northeast Asian painting, simplicity has long been revered as the highest ideal. It represents a thoughtful meditation on how to express beauty without dazzling the eye, how to convey emotion without stirring agitation, and how to capture genuine feeling without succumbing to fleeting tastes or worldly distractions. This reflective attitude aligns closely with the core values that simplicity seeks to embody. Though the monochrome surface seems austere and uniform at first glance, it actually contains countless subtle variations. The seemingly singular plane is in fact a complex interplay of minute differences. Moreover, the

painting evokes a landscape that is both present and absent — a “not there” kind of place. This ambiguous scene inhabits the liminal space between reality and unreality, visibility and invisibility, objectivity and subjectivity. There is no direct reference to any external world within the painting. It is composed entirely of color and light. Yet this abstraction stirs the viewer's emotions. One of the experiences this evokes is the sublime as encountered in nature. The sky and sea gradually rise and meet at the horizon, creating a dreamlike vista that hints at reality while enveloping the viewer in a vast, overwhelming sense of natural grandeur. The sublime—originating from the Greek term *hypsous*—stands in contrast to beauty, which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smallness, softness, and delight. Instead, the sublime is vast, ambiguous, and infinite. It is less an aesthetic category and more an emotional one. The sublime defies linguistic definition but can be indirectly expressed through imagery. Because an image cannot be confined to a single meaning, it invites a multitude of interpretations. As Jean-François Lyotard explains, an image touches upon deep, opaque realms beyond language, revealing a mysterious and indeterminate world that resists clear definition. True encounters with the sublime arise when one confronts the infinite — the radical “otherness” that, for the subject, feels akin to nothingness. It is the eruption of the unspeakable thing-in-itself into the sensory realm. Oh Byung Wook's painting aims precisely to visualize this profound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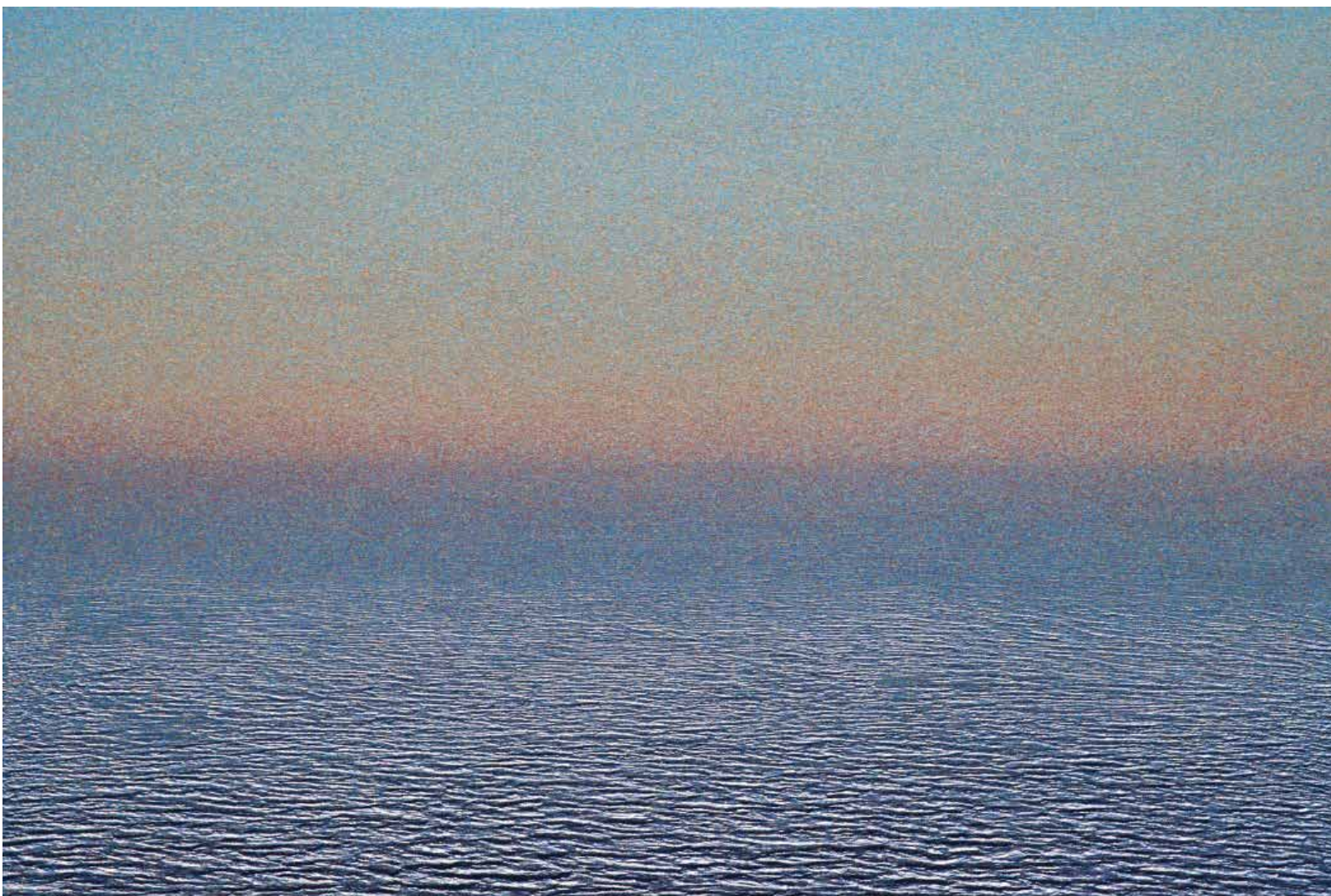
Between Material and Image

Is this a mere mimicry of nature, or rather a visualization of internal forms based on spiritual principles, rendered into sensory experience? The painting can indeed be seen as layers of pigment or irregular, overlapped strokes on the canvas, yet it also transcends these physical marks to invite a contemplative aesthetic gaze. Painting functions both as an object of perception and as a vehicle for imagination. While modern art has often attempted to reduce painting to pure materiality, it cannot completely erase the image within. Thus, painting exists in the space between matter and image. It cannot be reduced solely to matter; it strives to reveal something beyond. Likewise, humans cannot be objectified—they are beings who imagine and possess consciousness. Painting is a conscious, imaginative act aimed at transcending reality. To look at a painting is a deliberate distancing from reality, a refusal to be consumed by mere existence. A truly profound painting unexpectedly calls forth something new—something irreducible to meaning—into the canvas, allowing it to settle and dwell there. Painting is the painful presence of the unspeakable that longs to be expressed. Oh Byung Wook’s works, though composed purely of color and material in abstract form, continuously offer us the sublime—such as the sky, the sea, and infinity. They allow us to experience these not through clichéd figurative depictions but through visual and sensory engagement with the ineffable. This is not a banal reproduction of the world. In fact, the distinction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becomes blurred. The artist traverses this boundary with-

out falling into the traps of familiar representation or confining himself within rigid abstraction. His works gesture toward beauty and emotional resonance, as well as toward that which cannot be expressed or confined by language. His paintings quietly guide us toward what is unrepresentable yet insistently present.



Sea of My Mind #2506093, Acrylic on canvas, 100x200cm, 2025



Sea of My Mind #25060910, Acrylic on canvas, 80x117cm, 2025



Sea of My Mind #25060924(3), Acrylic on canvas, 227x182cm, 2025



오 병 옥 Oh Byung Wook

오병옥(b.1959)은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술이론 전공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트럼프의 청와대 방문때 걸려있었던 <내 마음의 바다>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오병옥은 생명의 모태이자 포용력을 상징하는 바다의 모습을 그린다. 여기서 바다는 실존하는 바다가 아니라 마음 한쪽에 자리 잡은 그만의 바다이다. 잔잔하게 깊어지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짝이는 그의 작품은 이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바다를 떠올리게 한다. 그의 바다는 인간 내면 깊숙이 품은 안위와 평온함에 대한 갈망을 채워준다. 작품에 묘사된 평온하고 잔잔한 모습의 바다와는 다르게 오병옥의 작업은 역동적으로 진행된다. 그는 울룩볼룩한 요철 위로 공기를 가로질러 물감을 뿌리는 드리핑 방식으로 색을 쌓아나간다. 이렇게 완성되는 작품에는 작가가 미세하게 조절하는 중력의 힘과 신체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작가는 온몸으로 바다를 그려내는 셈이다. 역동적인 에너지가 응축된 잔잔하고 고요한 오병옥의 ‘바다’는 언제나 그곳에 위치하며 관람자를 품어줄 것이다. 주요 전시로는 《Sea of your mind》(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5); 《BLUE HOUR》(아트사이드 갤러리, 서울, 2022); 《한국의 바다와 섬》(주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2019); 《오병옥 & 오병옥》(김세중 미술관, 서울, 2018); 《앙가쥬망전》(2017, 양주시립미술관, 양주, 2017); 《Above the blue》(일우스페이스, 서울, 2016);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전 Zeitgeist》(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3) 등이 있다. 소장처로는 국립현대미술관(서울), 미술은행, 제주도립미술관, 박수근 미술관, 주일한국대사관,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 제주롯데호텔, 대한항공 등이 있다.

Oh Byung-Wook (b. 1959)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d his M.A. in Art Theory at the same institution. Widely recognized for his work Sea of My Mind, which was displayed during President Trump’s visit to the Blue House, Oh depicts the sea as a symbol of life’s origin and emotional embrace. Yet the sea in his work is not a literal or geographical entity, but a deeply personal sea that dwells within the mind. Calm and expansive, his paintings shimme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iewer’s angle, inviting each person to recall their own version of the sea. Oh’s sea fulfills a longing for inner comfort and serenity—gently resonating with the depths of human emotion. In contrast to the serene and tranquil imagery depicted in his paintings, Oh Byung-wook’s working process is dynamic and vigorous. Using a dripping method, he sprays paint across the air onto ridged metal surfaces, building up layers of color. The completed work encapsulates the gravitational force subtly controlled by the artist, as well as the full energy of his body. In this way, he paints the sea with his entire body. Oh’s sea, quiet and calm yet condensed with dynamic energy, remains ever-present—ready to embrace the viewer. His major exhibitions include Sea of Your Mind (Art Side Gallery, Seoul, 2025); BLUE HOUR (Art Side Gallery, Seoul, 2022); The Seas and Islands of Korea (Korean Cultural Center in Italy, 2019); Oh Byung-Wook & Oh Byung-Wook (Kimsechoong Museum, Seoul, 2018); Engagement (Yangju Municipal Museum of Art, 2017); Above the Blue (Ilwoo Space, Seoul, 2016); and Zeitgeist, the opening exhibi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13). His works are included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the Korean Art Bank, Jeju Museum of Art, Park Soo Keun Museum, the Korean Embassies in Japan and Sweden, Jeju Lotte Hotel, and Korean Air, among others.

저 자 아트사이드갤러리
발행일 2025.07.03
발행처 (도서출판)아트사이드
이메일 info@artside.org

Director Lee Dongjae, Lee Heami
Executor Lee Byunghee, Noh Jinhwi, Kim Yejoo

Copyright © 2025 ARTSIDE Gallery.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in any media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6길 15, 03044
Tel 82-8-725-1020 @artsidegallery_@artsidetemporary

